

5월 16일

별지 1호 <보관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창립대회

- 때: 1997년 3월 28일(금) 오후 2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708-4112

보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전화 02-264-8649 전송 02-275-486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창립대회

- 때: 1997년 3월 28일(금) 오후 2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708-4112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전화 02-264-8649 전송 02-275-4861

차례

I. 창립대회

창립대회 순서	7
인사말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전진합시다! / 이우정	9
창립선언문	11
경과보고 / 이현숙	13
정관(안)	15
본 회의 활동방향	21
1997년 사업계획(안)	23
북한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25
발기인 명단	27
축시 / 고은	29
축하글	33

II. 평화·통일 관련자료

자료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의 성과와 전망 / 이미경	39
자료2. 여성의 시대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 / 한국NGO 평화분과위원회	45
자료3. 평화를 위한 한국여성운동 전략 / 김숙임	49
자료4. 북한 식량난의 실태 / 박경서	53
자료5. 대한 적십자의 지원현황 / 대한적십자사	57

III. 노래약보

•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61
• 비무장 지대	62
•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그날까지	63
• 서울에서 평양까지	64
• 아버지의 고향	65

창

립

대

회

- 창립대회 순서
- 인사말 / 이우정
- 창립선언문
- 경과보고 / 이현숙
- 정관(안)
- 본 회의 활동방향
- 1997년 사업계획(안)
- 북한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 발기인 명단
- 축시 / 고은
- 축하글

창립대회 순서

1부: 창립총회 (2사-3사)

사회: 최만자 준비위원

성원보고	이경숙 서기
개회선언	사회자
개회인사	이우정 준비위원장
회순 채택	사회자
경과보고	이현숙 집행위원장
정관 채택	사회자
공천위원 선정	사회자
임원선출	공천위원장
임원인사	신임임원
사업계획안 심의	신임대표
창립선언문 낭독	신임대표
기타안건	신임대표
폐회선언	신임대표

2부: 축하잔치 (3사-4사)

사회: 김숙임 준비위원

사물놀이	길라잡이
축시	고은(시인)
축사 1	강원룡(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사장)
축사 2	박순경(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대표)
축가	김애영(아라리오 대표)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북한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 북한 식량난에 관한 비디오 상영
- 북한 여성돕기 선언문 낭독
-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참여

3부: 다과회(4사-)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전진합시다!

이 우 정 준비위원장

1990년 8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1990년은 세계2차대전 때 연합군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한 지 4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세계평화회의는 그때의 처참함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자는 뜻에서 “핵무기 사용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개최한 모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들은 핵의 가공할 위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분단상황을 설명하고 분단은 남북한의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평화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심정도 토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석에서 당시 일본 전국부인회 회장이던 시미즈 스미코여사가 제게 진지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분단국이 된 데는 일본의 책임도 큼니다. 그러니 저희가 나서서 남북의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성사된 것이 1991년 5월 30일에서 6월 2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남북여성토론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북여성, 조총련, 민단여성, 일본여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이 모임은 동경, 오오사카, 효고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민족화해, 통일, 아세아의 평화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6년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남북여성들의 모임이었는데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그저 반갑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동족으로서의 애절한 정을 서로 숨기지 않았습니니다. 이때 저는 ‘우리는 절대로 나누일 수 없는 동족이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자매들도 마찬가지로의 느낌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립 선언문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

“여성의 힘으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기치아래 하나로 모인 여성들이 오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이 땅의 역사는 우리 여성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역사였다. 외세의 잦은 침략과 일제의 식민지배, 남북분단,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싸운 6.25전쟁, 외국군대의 주둔, 군부 독재로 이어진 불행한 역사는 이 나라에 환향녀, 군 위안부, 양공주, 관광기생이라는 비극적인 여성희생자들을 낳았다. 전쟁으로 자식을 잃거나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 전쟁과부,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여성들 또한 이 땅의 왜곡된 역사가 빚어낸 희생자들이다.

5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남북분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여성들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마땅히 복지의 수혜를 누려야 할 여성노동자와 농민, 빈민여성들은 막대한 국방비지출로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단한 삶을 꾸려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이 낳은 극단의 냉전논리, 동포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상존하는 전쟁 위협은 평화와 생명을 옹호하고 지향하는 여성들의 삶과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분단현실은 북쪽의 형제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도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비인도적 상황마저 연출하고 있다. 서구여성들이 북한의 임산모와 수유모,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는 등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도 정작 동포인 우리는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생명을 최우선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자 아픔이다.

이런 불행한 체험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동포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고 인도주의적 실천을 방해하는 분단은 명백한 불의며 분단이야말로 개인과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근원적 요소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들은 반평화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원폭피해자 돕기와 반전반핵운동, 군사비삭감운동, 전쟁반대운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우리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하여 남북여성교류라는 역사적 계기를 열기도 했다. 4차례의 교류를 통해 우리 남북의 여성들은 관점과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깊은 열망과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임 이후 우리는 남북여성토론회를 분단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평양에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북쪽의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남쪽땅을 밟게 되었고 남쪽의 여성들이 북쪽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힘으로 일궈낸 평화로운 남북여성들간의 교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후 남북의 정치상황은 점점 경색되어 갔습니다. 북쪽의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부터 최근의 잠수함사건까지 남북의 관계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포의 땅 북쪽은 식량 부족으로 매일 죽어간다는 비극적 소식이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영양부족으로 저능아가 될 위험에 처해 있고, 임신·수유를 해야 하는 여성들은 골다공증, 구루병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북한정부가 국제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동족인 남한이 안돕는데 왜 우리가 도와야 하느냐는 구실로 외국에서도 기꺼이 도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도주의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여성들이 민족의 화해를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 여성들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발기인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이런 결단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꺼이 참여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 평화의 행진에 나서주신 여러분을 뵈며 마음 든든함과 뜨거운 감사의 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하늘에 닿고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통일운동, 평화운동이야말로
오늘 우리 민족과 여성들에게 지워진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제라는 사실을 천명하며,
이 땅에 평화정신이 꽃을 피우고
군사안보 대신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인간중심의 안보가 보장되는 통일복지사회가 이뤄지는
그날을 위해, 평화의 대행진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분단의 깊은 골을 메우고 남북간의 길을 내는 분쟁해결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갈라진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해가는 문화의 통합자로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민족의 화해자로서 힘차게 일해갈 것이다.

우리는 평화로운 민족공동체와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위해
평화정신을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키고
사회 전반의 평화행위능력을 신장시키며
생명중심의 평화문화를 일구어 나갈 것이다.

또한 자주적 민족통일과 평화실현의 조건과 방법을 연구하여 평화정책을 제시하고
민족의 하나됨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행동을 펴나갈 것이다.

또한 무력분쟁과 갈등해결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평화를 위한 여성지도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여성평화운동단체로서
국제 여성조직과 연대하고 평화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지속적으로 평화조직망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통일 한반도 안에서, 그리고 아시아와 전 세계 안에서
긴장과 대결, 증오와 배척의 시대가 물러가고
정의와 사랑, 협동과 포용, 존중과 배려, 평화와 희망이 열매 맺도록
우리 여성들의 지혜와 평화적 감수성과 힘을 하나로 결집해 나갈 것이다.

1997. 3. 28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총회원 일동

경과보고

이 현 숙 집행위원장

1991. 남북한 여성과 일본여성들의 모임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
실행위원회 결성
1991. 5. 동경토론회개최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남측의 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참석. 북측의 여연구(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 부의장), 정명순(통일문제연구소 연구
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이연화(조선대외문화연합회 지도위원) 참석.
1991. 11. 서울토론회 개최 : '가부장제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
1992. 9. 평양토론회 개최 :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 책임, 평
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1993. 4. 동경토론회 개최 :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책임과 전후보상, 아세아평화.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996. 1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한국실행위원회 회의 :
- 1) 본회의 발전적 해체 결정
한반도 정세변화로 계속적인 남북토론회 개최가 어렵게 되자 아시아의 평화와 남
북통일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21세기를 준비하
면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평화운동을 이끌어갈 평화여성단체 결성의 필요성에
서 이뤄짐
 - 2) 가칭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결성
준비위원장 : 이우정(전 국회의원)
집행위원장 : 이현숙(전 한신대 강사)
사무국 책임자 : 김엘리(전 기독교평화연구원 연구원)
준비위원회 : 김숙임(전 기독교민회 대표), 김윤옥(전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박성자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소장), 박청수(원불교 강남교당 교무),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윤문자(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윤순녀(세세상을 여는 천주교여
성공동체 회장), 윤영애(강제연행당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
대 집행위원장), 윤수경(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이경숙(한국여성민우회 회장),
이계경(여성신문사 사장), 이문우(한국여성의 전화 명예회장), 이미경(국회의
원), 이영순(서울시의회 의원), 이효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A.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아시아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일평화사업: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반활동
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만자(한국여성신학회 회원), 최주영(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사무국장), 한명숙(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명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996. 12. 27. 제1차 준비위원회 : 본회의 명칭 확정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약칭, 평화여성회)
정관 초안 검토
창립총회를 위한 소위원회와 문서작성위원회 구성
발기인 선정 기준 확정 : 각 준비위원이 10명씩 추천을 원칙으로 함

발기인 참가비 : 1만원(이상)

창립총회 일시 확정 : 1997. 3. 28.

1996. 12. 이우정 준비위원장이 아시아 인권상 수상시 받은 상금을 본회에 헌금함

1997. 1. 17. 제1차 소위원회 : 총회순서, 총회기념행사의 내용과 형식, 창립대회 장소, 공천위원 등 확정

1997. 1. 24. 제2차 소위원회 : 본회의 성격과 활동방향 초안 검토
본회의 기본적 사업내용 검토

97년 중점사업 논의 : 북한 동포돕기(식량 보내기)

1997. 2. 27. 제3차 소위원회와 공천위원회 : 자문위원, 전문위원,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조직 구성 논의

창립대회 순서 확정 : 제1부 총회 순서

제2부 창립축하잔치 형식과 순서

1997. 3. 6. 제2차 준비위원회 : 총회후 통일원에 사단법인체로 등록하기로 함. 이에 따라 기존의 정관이 백지화되고 통일원 기준의 정관을 새로 작성하기로 함.

소위원회와 공천 위원회 논의 결과 검토 및 확정

준비위원 참가비 : 10만원

1997. 3. 10. 북한 식량난에 관한 국제회의(인천) 참석 : 이우정 준비위원장, 이현숙 집행위원장

1997. 3. 15. 문서작성위원회와 소위원회 : 전송을 통한 창립선언문 검토

1997. 3. 28. 제3차 준비위원회 : 총회의제 검토

1997. 3. 28. 창립대회 개최

제4장 총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 채택과 개정
3.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의결

제19조(총회의 의결)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대표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대표, 부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①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자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3인 내외의 부대표를 두고 그 중 상임부대표 1인을 둔다.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대표, 부대표 포함)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②번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④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대표, 부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대표는 대표를 보필하여 본회사업의 집행을 관장하며 상임부대표는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⑤감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발의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회원의 제명
10.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임원의 선임
11. 기타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정(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재정수입) ①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8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하도록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운동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1조(사무국)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2조(구성 등) ①사무국은 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사무국의 조직, 운영, 직원의 인사,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정관제정 및 개정) ①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②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③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법인해산)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35조(결산) 대표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원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회의 활동방향

1. 전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아시아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아래 평화정신을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키고 사회전반의 평화 행위 능력을 신장시키며 생명중심의 평화문화를 일구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족통일과 평화실현의 조건과 방법을 연구하여 평화정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민족통일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회행동을 펴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여성평화운동단체로서 국제여성평화조직과 연대하고 평화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지속적으로 평화조직망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 활동방향

1)민족통일을 위하여

- 남북한 여성들의 교류와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간다.
- 여성의 관점에서 민족공존을 위한 평화통일방안과 사회상을 모색한다.
- 평화적 심성과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훈련하여 냉전적 사고와 분단문화를 극복해간다.

2)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 아시아 여성연대망을 형성한다.
- 아시아 지역의 분쟁(인종, 계급 종교, 지역 간의 갈등) 해결에 여성들의 개입과 역할을 극대화하여 생명파괴의 위기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간다.
- 전쟁이나 분쟁으로 인한 여성들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피해여성들의 치유와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 다원적 방안을 아시아여성들의 힘으로 강구한다.

3)세계평화 - 평화공존의 미래세계를 위하여

- 핵전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행위와 다른 잠재적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이를 저지할 국제장치를 여성들의 손으로 만들어 간다.
- 가부장적 군사질서를 해체하고 군사안보를 인간안보로, 군비경쟁을 군축으로 전환하여 공존, 공생의 세계질서를 열어간다.
- 정보혁명, 기술혁명으로 야기되는 반평화적 현상을 여성의 입장에서 연구하여 대안적 평화문화 형성을 위해 대중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증대시킨다.
- 기타 인간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제반 요소들에 대한 여성들의 생태학적 감수성을 고양시키고 대응적 행동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죽음의 역사가 아닌 생명살림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3. 사업내용

1) 평화연구

① 통일문제연구

- 여성들이 바라는 통일방안 연구
- 북한과의 이질감 극복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 연구
- 여성들이 바라는 통일이후의 사회상(영역별) 연구

② 평화문제연구

- 가부장적 군사주의와 폭력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 무기생산과 거래 그리고 군사비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문제 연구
- 미군 주둔과 여성문제 연구
- 정보사회, 과학기술사회 속에서의 평화조건 연구

2) 평화교육사업

- 21세기 통일세상의 새사람, 새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화교육 실시
- 평화교육을 통한 평화지기단 운영 : 언론 모니터반, 평화문화반 등
- 토론마당, 심포지움, 공청회
- 지역 평화학교 운영

3)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행동

- 생활 캠페인: 모금운동, 상징직 물품 보급
- 평화지기단 운영
- 남북여성 교류와 토론회 개최
- 비무장지대의 평화생태공원 지정운동
- 방위비 삭감과 여성복지비 증대를 위한 대정부 활동
- 평화기행: 국제분쟁 지역과 국제평화운동단체 순례
- 기타 필요한 사회행동

4) 대외협력사업

- 통일모색을 위한 해외동포여성과의 만남
- 아시아여성들과의 만남: 군축, 반전, 통일, 여성문제 등 평화정착을 위한 사회행동, 국제 심포지움 등 연대활동
- 국제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지원활동과 분쟁해결을 위한 압력활동
- 기타 국내외 협력사업

5) 홍보활동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홍보
- 여론형성
- 대중적인 정기간행물 발행(연구물 발표, 세계·국내평화운동 동향, 정보 등)
- 평화만들기: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 발행 등

1997년 사업계획(안)

I.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돕기 운동 : 북한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I. 취지 :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식품과 의료품을 제공함으로써 ①북한동포의 생명을 살리고 ②여성 인권의 조건을 보장하고 나가서 ③민족의 공존과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II. 내용

1. 기간: 3.28-6.28 (3개월/ 1차 예정)
2. 표어: 북한 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실천방법 슬로건: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각 5,000원)
-한사람이 북한 어린이 한명 돕기
-한사람이 임산모(수유모) 한명 돕기
-한사람이 한 가정(4인) 돕기
3. 사업주체: 평화통일사업위원회

III. 모금운동 방법

1. 거리모금
1) 일주에 한번, 특정한 장소에 나가서 북한 식량난 대중홍보 및 모금활동을 한다.
2) 거리 콘서트나 짧은 공연을 통하여 선전 효과를 높인다.
2. 회원 및 단체 중심의 모금
1) 금액: 5000원 이상
-한사람이 북한 어린이 한명 돕기 5,000원
-한사람이 임산모(수유모) 한명 돕기 5,000원
-한사람이 한 가정(4인) 돕기 5,000원
1개월분 구좌 5,000원
3개월분 구좌 15,000원
6개월분 구좌 30,000원

IV. 홍보와 교육

1. 간담회: 북한에서 귀순한 여성들, 북한을 방문한 적 있는 국제기구의 활동가 등을 초청하여 현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화나누기

2. 소식지 발행: 북한상황과 모금 현황 등이 담긴 소식지
3. 가두캠페인

2. 평화교육 및 평화지기단 운영

- 1)대상: 회원, 일반인
- 2)취지: 평화문제에 대한 몇가지 주제들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평화의식을 고양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는 평화지기를 양성하는데 있다.
- 3)사업주체: 평화교육위원회

3. 토론회 개최

- 1)'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의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토론회
- 2)북한여성들의 상황,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방안과 역할 등에 관한 국내 토론회
- 3)사안별 공청회 및 토론회
위의 3가지 중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토론회 주제 선정하여 한 번 정도 개최
·사업주체: 평화연구위원회, 평화교육위원회

4. 통일복지사회를 위한 남북군축운동

- 1)취지: 군사비를 줄이고 사회복지예산을 증대함으로써 통일복지사회를 준비하고자 한다.
- 2)방법: 국방예산 편성과 관련된 재경원, 국회의원 등에게 방위비 삭감의 정당성을 알리고 요구하는 방식 예)국회청원 등
- 3)시기: 8월-정기국회 동안
- 4)사업주체: 평화통일사업위원회

5. 폭력줄이기 캠페인

- 1)취지: 군사문화에서 비롯된 각종 폭력(어린이, 청소년 폭력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인간의 존엄성, 화해, 공존 등의 평화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확산시키며 이를 개인적으로 내면화하는데 있다.
- 2)방법: ① 대중적 매체(와 거리홍보)를 이용한 캠페인
② 무기장난감을, 평화적 심성을 길러주는 장난감으로 바꾸기
③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정책수립, 제도장치 마련을 위한 대정부 활동
④ 공청회 등
- 3)시기: 하반기
- 4)사업주체: 평화통일사업위원회

6. 회지 발송

7. 연대사업

8. 기타

북한 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임진강 너머, 그냥 걸어가면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북녘땅에서는 우리의 북한동포들이 기아의 고통을 견디면서 식량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찬없는 식사는 이미 오래전 얘기이고, 먹을 것이 없어 뿌리나 풀을 뜯거나 나무껍질을 벗겨서 연명하고 있는 등, 식량을 구하러 논과 들판을 돌아다니거나 열차를 타려고 북적대며, 쌀을 구하기 위해 몰래 국경을 넘나드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와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결핵이나 유행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한겨레 3. 19),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어린이 4-6세의 영양섭취량이 국제권고치의 38-50%에 불과하여 어린이의 키와 몸무게 비율이 정상치보다 20% 낮다고 보고합니다.

바로 열흘전 북한의 식량상태를 돌아본, 세계식량계획(WFP)의 버티니 사무국장은 “뼈가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노란색을 띤 어린이들이 눈에 띈다”고 말하며 먹을 것이 없어 벗짚과 옥수수줄기, 나무껍질을 가루로 빻아 먹어 장출혈까지 일으킨 어린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의주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어린이를 보았다는 목격담도 보도되고 있습니다.(중앙 97.3.25)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백두산의 나무가 혈값에 팔려 민둥산이 되고 국보급 문화재들이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는 북한의 식량난의 피해가 사람 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적 재산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떠들썩하게 국내외를 흔들었던 북한의 대만 핵폐기물 반입문제를 보아도 북한의 절박한 식량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부족한 식량분의 평가는 200만톤-300만톤으로 조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2천 3백만명의 북한 주민들 중 40%에 해당하는 약 1천만명이 아사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하루 평균 100g(공기밥 반그릇)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는데, 이는 1985년 에디오피아의 기근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세계식량계획(WFP)은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7-8월에는 식량이 바닥이 나서 최대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없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지척에서 이렇듯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는 북한여성들의 실상을 우리들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들의 고난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나누기에는 분단의 벽이 너무나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젠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굶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일단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

산할 사회적 조건과 보호가 필요하나 현재의 북한 경제적 상황에서 이러한 모성보호는 예전 만 하지 못할 것이고 여성들의 건강과 이로인한 유아들의 건강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우리민족의 역사적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같은 어머니 마음으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끌어안고 주린 배를 풀어주면서 분단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전쟁이나 기근 때에 가족의 경제를 맡아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가정을 지탱 해왔듯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북한 여성들의 이러한 끈질긴 생명력을 믿으며 조금이나마 그 어려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한사람이 북한 어린이 한 명 돕기, 한사람이 임신모(수유모) 한 명 돕기, 한사람이 한 가정(4인)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행위가 동포의 생명을 살리고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만들며, 통일세상을 준비하는 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1997년 3월 28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밥나누기 • 사랑나누기

북한 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밥나누기 사랑나누기를 실천합니다.

한사람이 북한 어린이 한명 돕기	5,000원
한사람이 임신모(수유모) 한명 돕기	5,000원
한사람이 한 가정(4인) 돕기	5,000원

5천원이면 (유엔의 하루 최저 권고치 쌀 45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한동포 한사람이 한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며,
하루에 북한동포 45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북한동포 4명이 열흘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1개월분 구좌	5,000원
3개월분 구좌	15,000원
6개월분 구좌	30,000원

한일은행 064-015264-02-101 이우정(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우체국 013649-0049796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문의 02-264-8649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약정서는 자료집 맨 뒤쪽에 있습니다.

발기인 명단

강남순, 강남식, 강선미, 강순원, 강정숙, 강혜숙, 고은광순, 고은실, 곽금희, 곽분이, 구훈모, 권숙희, 권향엽, 김경민, 김경천, 김근화, 김동순, 김매련, 김명륜, 김명미, 김명화, 김묘주, 김복자, 김삼화, 김상임, 김상희, 김선경, 김선실, 김선옥, 김성남, 김성은, 김수자, 김숙임, 김순영, 김애실, 김애영, 김엘리, 김 영, 김영선, 김영애, 김영양, 김영화, 김윤옥, 김은애, 김은희, 김인순, 김정미, 김정민, 김지선, 김지영, 김현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희, 김혜란, 김혜원, 김혜진, 김화정, 김효정, 김희선, 김희은, 나선정, 나영희, 남명자, 남미영, 남윤정, 남인순, 노길림, 노영희, 노주희, 명진숙, 묘덕, 문선경, 문수경, 문화령, 박경미, 박경수, 박남식, 박문숙, 박미경, 박미현, 박상희, 박상희, 박성아, 박성자, 박성자, 박애경, 박영숙, 박영옥, 박옥순, 박유희, 박윤희, 박의경, 박인숙, 박인옥, 박정혜, 박진경, 박찬숙, 박청수, 박춘희, 박현경, 박현선, 박형옥, 박혜경, 박혜란, 박후임, 배선희, 배성자, 배윌수, 배은아, 백미순, 백수경, 봉금, 서미숙, 서애란, 선순화, 성명옥, 손덕수, 손승희, 손영주, 송경자, 신경혜, 신미숙, 신미자, 신선, 신윤옥, 신인령, 신필균, 신희운, 신혜수, 심혜련, 안은영, 안재남, 안정연, 안현숙, 양해경, 여혜숙, 염명옥, 염인순, 오미덕, 오성숙, 원금자, 유근숙, 유복남, 유성희, 유옥순, 유은옥, 유춘자, 윤금순, 윤명선, 윤문자, 윤미옥, 윤세나, 윤수경, 윤순녀, 윤영실, 윤영애, 윤운영, 윤정모, 윤정옥, 윤지희, 윤혜숙, 이경숙, 이경숙, 이경숙, 이계경, 이계영, 이귀선, 이규은, 이나미, 이명화, 이명희, 이문숙, 이문우, 이미경, 이미영, 이미희, 이민정, 이순례, 이연화, 이영숙, 이영순, 이우정, 이우일, 이은숙, 이은영, 이정자, 이정희, 이현숙, 이혜경, 이혜경, 이효재, 인금란, 인재근, 임상희, 임순분, 임정진, 임정훈, 임혜숙, 장귀선, 장도송, 장도연, 장윤경, 장은숙, 장인숙, 장진, 장필화, 전성희, 전순란, 정강자, 정경란, 정미경, 정보영, 정숙자, 정양희, 정은경, 정은숙, 정정자, 정지영, 정진성, 정현백, 조형, 조무하, 조성혜, 조영숙, 조영희, 조윤희, 조임숙, 조혜정, 조화순, 지순희, 지은희, 차명희, 차옥덕, 채은하, 채혜원, 천순임, 최만자, 최보문, 최선희, 최성미, 최양순, 최영애, 최옥실, 최은자, 최인자, 최주영, 최진영, 최현남, 한국염, 한명숙, 한명희, 한숙희, 한정자, 한진이, 홍미영, 황화란 / 모두 258명(97.3.26. 현재)

지문위원 : 이효재, 윤정옥, 조화순,
강만길, 강문규, 리영희, 오재식, 한승현,

전문위원 : 김삼화, 김애실, 이나미, 이은영, 장필화, 정진성, 조혜정,
강정구, 노정선, 박경서, 박원순, 이삼열, 조용환,

고 은(시인)

오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온 세상 여성 여러분께 아립니다
 이 자리에 안오신
 여성 여러분께도 아립니다
 나는 이 시대를
 여러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거니와
 내 꿈은 모계사회에의 복귀입니다
 아득한 옛날옛적
 그 하늘 아래
 드넓은 대지의 미지 가운데서
 지혜와 힘을 갖추어
 꽃피웠던 모계사회야말로
 다시 한번 이루어질 인류의 새 역사일 것입니다

한국여성 여러분께 아립니다
 이제 평화도
 여러분이 나서서 이룩하셔야겠습니다
 그동안 남정네 중심의 세상에서는
 평화는 커녕 평화의 사돈에 팔촌도 못이루고
 날이날마다 아웅다웅 싸움질만 해왔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남정네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나 이런 남정네한테 다 맡기고
 여성 여러분은 그저 오랜 노복으로
 오랜 부속물로
 오랜 객체로만 살아야 합니까

과연 농경사회 몇 천년은
 당장 땅을 가꾸어야 했으므로
 힘있는 남정네가 나서야 했습니다

오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온 세상 여성 여러분께 아립니다
 이 자리에 안오신
 여성 여러분께도 아립니다
 나는 이 시대를
 여러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거니와
 내 꿈은 모계사회에의 복귀입니다
 아득한 옛날옛적
 그 하늘 아래
 드넓은 대지의 미지 가운데서
 지혜와 힘을 갖추어
 꽃피웠던 모계사회야말로
 다시 한번 이루어질 인류의 새 역사일 것입니다

한국여성 여러분께 아립니다
 이제 평화도
 여러분이 나서서 이룩하셔야겠습니다
 그동안 남정네 중심의 세상에서는
 평화는 커녕 평화의 사돈에 팔촌도 못이루고
 날이날마다 아웅다웅 싸움질만 해왔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남정네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나 이런 남정네한테 다 맡기고
 여성 여러분은 그저 오랜 노복으로
 오랜 부속물로
 오랜 객체로만 살아야 합니까

과연 농경사회 몇 천년은
 당장 땅을 가꾸어야 했으므로
 힘있는 남정네가 나서야 했습니다

이 지역과
저 지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힘있는 남정네가
그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서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농경사회만으로 된 시대가 아닙니다
여성 여러분의 시대가 와서
남정네와 똑같이
아니 남정네를 넘어서
여러분의 새 문명을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흔히 양의 시절이 가고
음의 시절이 왔다 하거니와
보십시오 어디가나 여성의 창익이 드높아졌습니다
우선 장차의 인구는
남정네보다 여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껏
남정네 판의 세상으로
그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이 지저리 못한 정치도
이제는 여성 여러분이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썩은 정치 쓸어내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혼의 정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홀아비 살림살이는 이가 서말이요
홀어미 살림살이는 금이 서말이라
경제는 여성 여러분이 맡아야
동남서북 어디도
물 뿌린 트랙처럼 알뜰살뜰합니다

한국여성 여러분
이제 여러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갈라진 죽음의 민족을
하나인 회상의 민족으로 만들어
그 통일이 무작정 통일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함께 강강수월래의 춤 추어야 할

그 통일이야말로
여러분이 이룩해야겠습니다

어디 우리나라 통일뿐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사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아시아 여러 고장의 분화와 분쟁 해결하며
커다란 평화의 동산으로 만드는 일도
여성 여러분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명은 남정네의 힘 겨루기로
핵전쟁이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폭력도 그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한국여성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여성 여러분
장차는 모계사회의 복귀를 통해서
제2 인류역사를 펼쳐야 하거니와
바야흐로 한가지 한가지 사명으로 하여금
이 땅의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누가 누구를 죽이거나 쓰러뜨리는
그런 수작을 소멸시켜서
여성 여러분의 모성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의 남정네를
다 핏가루 뿌려 내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고쳐서 이끌어야겠습니다
오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야말로
분열과 전쟁
그리고 힘 지상주의를 이겨내는
가장 거룩한 세계에의 변화를 뜻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글

☞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은 하나뿐!

여러분은 좋은 몫을 택하였습니다

- 공동체성서연구원 -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창립에 축하와 연대의 말을 전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의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 경실련 통일협회 -

☞ 이땅에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여성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기독교민회 -

☞ 여성은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창조의 원천입니다. 그런 여성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이 지구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려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

☞ 민족의 평화 통일과 아시아 지역의 평화, 평화공존의 미래 세계를 앞당기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국연합은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여성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 귀회의 창립이 그간 불모의 영역이었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을 위해 우리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큰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축하드립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 아시아 평화! 민족통일! 평화 공존의 미래사회! 를 향해 2천만 여성의 힘을 모아 나갈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 인천여성노동자회 -

● "생명을 기르듯 평화의 나무를 심어 울울창창한 통일의 숲을 가꾸어 갑시다."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함께 갈라진 조국허리에 통일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남북어린이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통일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냅시다.
- 지역사회탁아소연합 -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출범을 참여연대 회원의 뜻을 모아 축하드립니다. 평화와 공존, 민족의 재통일은 우리 모두의 숙원입니다. 이를 앞장서 실천해 나갈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든든함을 느끼며 앞으로 큰 발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 통일의 물꼬를 여성들이 먼저 열어가면 통일의 과정은 더욱 평화스럽고 사랑에 넘칠 것입니다. 어리고 약한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감싸 안으면서 앞서나가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 통일맞이 칠천만 거래모임 -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창립을 축하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창립을 축하합니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우리 여성들의 힘으로 앞당깁시다!! 폭력을 반대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의 힘은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물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 평화정착의 신화를 창조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발족을 축하합니다. 평화로운 땅 일구는 그 길에 여연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분단에서 통일로.....
갈등에서 평화로.....
평화 여성의 알찬 결실을 맺기를!!!

- 한국여성민우회 -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사랑합니다!!!

- 한국여성의 전화 -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통하여 평화 정신이 가득한 누리가 되고, 생명을 사랑하는 문화가 모든 분단의 벽을 헐고 평화의 춤을 추는 날을 하루속히 열어 주는 여성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창립을 축하합니다.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하늘의 반' 여성들의 뜻을 모아 세계평화에 앞장서시길 바라며 더불어 우리의 환경문제도 간과하지 않는 회가 되길 바랍니다.

- 환경운동연합 -

평화통일

관련자료

- 자료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의 성과와 전망 / 이미경
- 자료2. 여성의 시대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 / 한국NGO 평화분과위원회
- 자료3. 평화를 위한 한국여성운동 전략 / 김숙임
- 자료4. 북한 식량난의 실태 / 박경서
- 자료5. 대한 적십자의 지원현황 / 대한적십자사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의 성과와 전망

이미경 준비위원(국회의원)

1. 머리말

1992년 9월 1-6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평양토론회가 여성들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관심 속에서 열렸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히 남·북·일 여성 지도자들간의 국제 회의 또는 토론회 차원으로 한정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여성들이 평양에서 만나는 행사이며, 민간 교류로서는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루어진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남북간에는 남북단일 축구팀과 통일 음악제 등 스포츠와 음악을 통해서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과시한 민간 교류가 있었지만, 이것은 남북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과정에 참여했는데 비해, 여성들의 이 토론회는 남한의 진보적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민족대단결, 일본의 전후 보상과 책임, 아세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 등과 같은 남북간 대화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교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토론회가 진보적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주체가 되어 토론회를 성사시키고 참가했다고 하지만, 그것의 준비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성운동 안에서 조직적으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지난번 서울토론회 이후에도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며, 앞으로의 전망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평양토론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더불어 평가를 곁들이고자 한다. 단, 아직까지 토론회에 참가한 실행 위원들과 남측 참가자들간의 공식적인 평가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평가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

2. 토론회의 주체와 참가자 선정

평양토론회를 준비하는 남쪽의 주체는 지난 서울토론회의 공동 대표인 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3인의 공동 대표와 더불어 강성해, 김운옥, 안상남, 윤영애, 이미경, 한명숙 등 6인의 집행 위원이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한국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였다. 혹시 평양토론회를 앞두고 한국실행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물음을 던질 수 있겠지만, 재구성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 판단되었다. 사실 서울토론회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평양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일종의 기득권을 주는 것이어서 그 의견을 수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서울토론회의 주체였던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대신 각계 각층 여성들이 평양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4월말 동경에서의 비공식 접촉에서 북측에게 기자를 포함하여 3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줄 것(서울토론회는 15명의 북측 대표를 초청하였다)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북측이 7월 29일 판문점 예비실무회의에서 대표와 실행위원 9인을 지명 초청하고, 기자 5명을 포함하여 30명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인원수의 확정이 이루어졌다. 16명이 더 참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정부와 끝까지 신경전을 벌인 것이, 늘어난 여유참가인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였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통신, 행낭 전달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요원이 필요한 것이었고, 정부는 최소 5인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양보하고, 대신 11명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선정한 각계 각층 여성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정부에 참가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11명은 여성계 원로, 노동, 농민, 학계, 예술계 등 각계 각층의 여성 지도자들로 고루 배치하였다.

명단을 제출해 놓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정부에서는 재야 여성단체 중심으로 보낼 것인가 월가월부 논의가 많은 모양이었다. 정부 쪽에서는 우리에게 "범여성적으로 대표를 구성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참가자의 반은 재야 여성이 아닌 쪽에서 구성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물론 우리 쪽에서는 이것은 자율적인 민간 교류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는 민간 교류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처럼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하였다. 판문점을 넘어 북녘 땅으로 가는 일 자체가 정부의 협조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소지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1991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측 목회자를 총회에 초청한 일이 도착 하루 전날 무산된 것처럼, 정부는 우리의 민간 교류를 언제든지 합법의 틀 속에서 방해할 수 있는 방편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무리한 개입을 규탄하고 평양토론회 참가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루어 낼 것인가? 타협의 지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는 고민과 과제가 실행 위원회에 넘겨졌다. 정부의 개입은 통일위원의 의사가 아니라 정부 각부처에서의 제기한 의견의 반영이며, 더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여성계에서의 압력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대표단 구성을 놓고 정부와 타협을 하지 않고 토론회 참가를 거부할 경우, 국민 여론은 반반이라고 생각되었다. 정부도 비난을 받겠지만, 국민 여론 역시 우리가 조금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신경전 끝에 북측에 참가자를 알려주어야 하는 마지막 시점에서 타협안으로 합의본 것이, 대표단은 우리쪽 3인으로 하여 대표성에서의 주도성을 명확히 하며(북측이 대표단을 5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대표단 역시 범여성적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 쪽 이외의 추가 인원은 통일문제 전문 연구자 7인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노동자, 농민 등 기층 여성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조화순목사가 참가하기로 되었지만, 실제 노동자·농민 대표가 빠지게 되었고, 그 동안 통일 운동에 앞장서 온 교회여성연합회의 박순금 회장이 빠지게 된 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이며, 대표단 구성에서 미흡함을 던져 주는 문제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남북 여성간의 역사적인 만남의 성격이 강한 이 토론회의 주체를 둘러싸고, 여연과 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여성운동계 내에서는 물론이지만, 중간적, 보수적 여성운동계와 각계 각층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토론회가 성사된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우정대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측과의 교섭의 산물이지만, 이 토론회가 가지는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충분히 살리 수 있는 보다 확대된 조직 구성이 요청되는 것이었다.

3. 토론회의 목표와 성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마 남·북·일 여성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먼저 남측 여성들은 통일독일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과연 통일이 여성문제의 자동적 해결을 가져올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성들을 위한 전체 운동의 흐름에 연대하면서도, 통일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과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되, 이와 더불어 여성문제를 중요한 고리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한반도 여성들이 겪는 고통의 주된 본질이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민족분단에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독자적인 의제로 삼을 필요가 없으며 민족대단결, 통일방안, 외세의 문제 등에 대해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공동 모색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여성생활이나 지위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생각하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번 평양토론회에서도 북측의 한 질문자는 "집안에 강도가 침입한 절박한 시점에서, 강도가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는 것은 너무 한가로운 태도가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남측의 여성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민족민주운동의 전체적 관점과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미 많은 토론이 있었으며, 그것은 결코 분리되거나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 통일운동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성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토론회가 전체 통일운동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여성문제를 포함해 내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서 통일운동에서 여성의 독자적 역할과 공헌을 부각시켜 내도록 노력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여성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여성에 비해 일본측의 입장은 다소 제3자적일 수밖에 없다. 즉 남북 여성간의 만남에 있어서 매개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가끔 “북측과의 연락을 제3국을 통해서 하라”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는 동안은 이러한 일본의 역할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중개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토론회에 참가하는 일본의 입장은 “아세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일본의 새로운 군사 대국화와 경제적 지배를 막는 일이 필요하므로 남·북·일 여성만이 아니라 ‘아세아 여성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목표의 강조점에서 각기 차이점을 가지고 만난 남·북·일 여성간의 토론회가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동안, 공동인식과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작년 1991년 5월 처음 동경에서 남·북·일 여성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질 때가 지만 하여도, 우리들은 만약 서울 토론회, 평양토론회가 열릴 때, 무슨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분명하지 못했다. 우리는 북측의 여성대표들을 잘 알지 못하였고, 북측 대표들 역시 남측의 진보적 여성운동가들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경만남을 통해, 우선 서로간에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서울토론회와 동경토론회를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아주 성공적인 상견례였다고 생각한다.

이후, 1991년 11월 서울토론회 때는 남북여성들이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서로 다른 체제에서 46년간 살아온 남북 여성간의 관심과 인식의 차이점 때문에 매우 격렬하게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

남측 여성들은 ‘여성과 문화’라는 주제를 채택하여 통일의 핵심문제에 바로 접근하기 보다는 여성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만나기를 원했고 북측 여성들은 ‘통일과 여성’의 주제를 가지고 바로 통일의 핵심에 다가가기 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음을 내어서 멋있는 하모니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남측 여성들에게는 “우리가 생활적인 관심은 높지만, 민족의 핵심적인 문제인 통일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변부에 스스로를 위치시켰다.”는 반성을 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북측 여성들은 남측 여성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후 1992년 9월 우리는 평양에서 세번째의 만남을 가졌다. 주최자인 북측여성들은 여전히 통일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는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을 주요 의제로 내왔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통일방안을 의제로 하는 것보다는 남북여성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의제였다. 북측여성들은 남북 여성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발언은 가능한한 자제하고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즉 현재 남북당국자간의 첨예한 문제로 부상되어 있는 핵사찰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일본의 핵개발에 공동 경계하자는 제안 등은, 분명히 핵문제가 거론될 것을 예상하고 남측에서 준비해간 내용과 우연히 일치되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의 전후책임과 정신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남·북·일 여성이 공동관심사로 주목을 받았다. 정신대 문제는 남측과 일본측이 동경과 서울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북측의 관심을 촉구하였는데 이 덕분인지 그동안 북측은 많은 증언자를 찾아내었고,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만남을 거듭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통의 실천과제에 접근하게 된 것이다. 제4차 토론회의 의제를 자연스럽게 ‘정신대 문제와 일본의 전후 처리’로 정하고, 1993년도에 동경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일 여성들은 3차례에 걸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아세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남·북·일 여성들의 공동인식과 기반을 넓혀가는데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이 토론회를 상설화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일을 위하여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회’라는 상설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불과 1년 동안 3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신대 문제를 공동대처하게 되었고, 이것은 아마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남북일 또는 남북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체적 과제를 찾아낼 수 있는 전망을 던져주었다고 생각한다.

4. 전반적인 평가와 전망

범민족대회나 범민련 활동이 당국에 의해 불허되고 그 관계자들이 구속, 수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들의 토론회가 성사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성토론회를 통해서 당국이 노리는 이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민간교류운동은 원칙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운동의 범위 내에서 투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당국과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이고, 타협하고, 그리고 일정하게 협조를 받고 진행되었던 여성토론회는 전혀 투쟁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조직이 그러한 타협을 허용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결과적으로 토론회는 성사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토론회를 위해서 남북간의 접촉, 신변안전 문제 등에서 이미 정부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구조적으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대한도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일하고자 한 반면에, 정부로서는 남북여성간의 토론회가 향후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이름으로 일정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투쟁의 방식만을 가지고는 현 단계로서는 평행선을 그을 뿐 성사되기 힘들며, 타협의 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자주적 민간 교류에서 가장 힘든 점이였다. 어떤 때는 “차라니 그만 두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고, 이때 정부나 우리쪽 모두 대국민적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설정되었다. 여하튼 시시각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대 정부와의 문제들을 조직적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시시콜콜 털어놓고 의논하기란 현 단계에서는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판문점을 넘어서기까지는 이 일이 성사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

있을 정도이었으니까.

비록 여성단체들간에 조직적으로 합의하여 구성된 실행위원회나 대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활동이 통일운동 뿐만 아니라 진보적 여성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였다. 우리의 발언내용이나 발언들이 그동안 함께 여성운동, 통일운동, 평화운동을 해온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의 견해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발언을 '북의 일방적 견해를 지지한 것'으로 왜곡 보도 되지는 않을 것인지? 정부추천 인사들의 발언이 남측 주최측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북측에 오해되는 일을 없을 것인지? 등등 모든 것들이 노심초사였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덮혀지듯이" 다행히 평양토론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트가히 마지막 일정에도 없던 김일성 주석의 초대는 평양토론회의 지위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자는 이 토론회의 결과에 대해, "재야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중심되는 민간교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토론회에서 북측도 "성공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후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남측 정부가 이익이 있으니까 교류를 허용한 것 아닌가? 결국 정부측의 이익을 위해 기여한 것 아니냐?"는 일부에서의 물음은, "북측에서 김주석까지 남측 여성대표를 초청한 것은 자신들에게 그만큼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정반대의 물음과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처럼 극단적인 의심속에서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평가의 잣대는 남측 정부가 이익을 보았느냐 보다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도움이 되었느냐에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회가 가지는 중요한 성과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역량을 전국적 그리고 범민족적으로 과시하였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준비과정이나 대표선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 토론회는 분명히 그동안 여성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수행해온 진보적 여성운동의 성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상설화할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회'를 지금보다는 더 진보적 여성운동의 조직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여성단체연합 대표와 여성노동자나 여성농민운동 대표가 포함되도록해야 하며, 이들 대표를 파견한 집단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이 토론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운동은 가능한한 각계 각층이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참가의 범위에서 우리와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여성 지도자들의 참여도 포용하려는 개방적 자세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측 내에서의 여성간의 대화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92.10. 민주여성 13호)

여성의 시대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

1. 평화를 보는 시각

인간처럼 '평화'를 원하는 존재가 없을 것이다. 각국의 인사말이 모두가 '평화'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shalom)이라는 말은 모든 생명이 약자나 강자가 평등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총체적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전쟁하지 않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해석으로 발전해 왔다.

2. 한국의 분단과 여성현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한 여성들은 평화를 위협받으며 살고 있다. 한국 여성들의 식민지 경험, 민족 내부의 이념적 갈등,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겪는 고통의 경험들을 재발굴하고 재해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분단 상태는 남한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이유로 군사 정권의 지배가 계속되면서(1961~1986)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또한 높은 군사비 부담으로 국민복지 수준이 경제 수준에 비추어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 약자층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가시적, 비가시적인 면에서 커다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첫째, 오랜 군사 정권으로 인해 군사 문화가 사회 구석구석 지배하고 있다.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군사 문화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와 결합해 여성 차별을 심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를 만들었다.

둘째, 오랜 군사적 대치로 인해 국방비에 대한 부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고 사회복지 수준은 형편없이 낮다는 것이다. 1995년 국방예산은 총예산의 22.1%인 11조 744억원이고 사회복지 예산은 6.38%에 머물고 있으며 남한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세계 70위이다. 이는 남한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태국의 복지비 10.4%에 비해서도 낮은 것이다. 이러한 낮은 사회복지 상태는 탁아문제, 노인문제, 모성보호문제 등을 여성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셋째, 분단과 함께 공동방위라는 명목으로 남한에 머물고 있는 주한 미군은 현재 5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주한 미군은 남한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루 5건이

라는 범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한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남한의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이들의 성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강간, 살인, 폭행, 성희롱 등의 미군 범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거치면서 분단과 전쟁의 위협으로 인한 여성의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여성들은 평화가 더욱 절실한 바램이며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의 활동도 여러 부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 이행 상황 평가

1)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교류 활동

남북 여성 교류를 위해 노력해 온 교회여성단체와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1991년 민간차원의 남북여성모임을 성사시키게 된다. 남과 북 그리고 일본 여성들의 만남을 통해 우선 서로간에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을 확인하였다. 이후 '92년 4월에는 동경에서 4차 토론회를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주제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 전후보상문제 등 일본군 '위안부' 대책 문제가 평화통일 및 아시아의 비핵화문제와 함께 일본의 책임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논의했다. 남, 북, 일 여성들은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였고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남·북·일의 당사자인 남, 북의 여성들의 토론장을 실현시키는 것과 일본여성뿐만 아니라 중국 등 기타 지역의 여성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활동과 반전반핵운동

· 원폭 피해자 지원 활동

70년대 한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의해 발생된 피폭자 3만여명이 병고와 빈곤 속에 살고 있었고 일본이나 한국 정부로부터 의료혜택이나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었다. 한국교회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70년대 중반부터 남한의 원폭 피해자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끌어내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미완된 전후 처리 문제를 여론화 해내고 세계교회 연대와 지원을 이끌어 내어 실질적으로 피폭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과 치료 등을 꾸준히 진행했다.

· 반전, 반핵 운동

한국의 교회 여성 단체와 진보적인 여성 단체가 연대하여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의 유입과정, 핵무기의 사용처와 그 피해 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핵무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반전, 반핵, 평화마당> 행사를 통해 반핵평화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였다. 이러한 반핵운동의 성과로 1992년에는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을 모두 철수한다는 남한정부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낳았다.

3) 평화군축운동

· 방위비 삭감운동

동서냉전의 해체, 1991년 9월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상호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채택 등에 힘입어 평화군축운동이 여러 형태로 진행되었고 특히 과중한 방위비삭감 논쟁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마침 국방부 후원으로 군사 무기와 장비 국제 전시회가 계획되고 있을 때 여성단체들과 교회여성단체들은 국방부 장관에게 '방위비 삭감 요청과 무기 전시회에 관련된 질의서'를 발송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요청 서신을 발송하는 동시에 대중운동으로 '방위비 삭감을 요구하는 편지를 씩시다'라는 캠페인도 벌여 나갔다.

방위비 삭감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교회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평화운동단체 등이 '방위비 삭감연대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방위비 삭감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과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방위비를 중상위 자본주의 국가의 방위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하고 복지비를 증액하라는 내용의 대대적인 엽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처럼 '방위비 삭감연대모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정립, 여론화하였고 군축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남한 정부에서는 방위비를 삭감하려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

1991년 1월 미국, 유엔의 다국적 군에 의한 대이라크 전쟁이 개시되고 미국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남한의 참여와 협력을 강요했다. 이에 '결전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을 결성하여 자식들을 전쟁에 내보낼 수 없다는 사회 여론을 조성해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1994년 6월에는 미국과 남한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틴스피리트 훈련과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평화를 위한 여성연대'를 구성해 평화 행진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쟁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평화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책활동

1984년 9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 계획이 발표되자 교회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이 일본식민잔재를 청산하고 대등한 우방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원폭피해지문제, 사할린교포 문제 등과 함께 제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책 활동이 시작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책 활동이 활기를 띤 것은 '90년 11월 37개 여성 단체가 결집된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를 정식으로 결성하면서 이다.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여성을 찾아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신고 전화"를 설치하여 한국에서 141명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중 19명의 증인의 증언을 묶은 증언집을 '93년 2월 출판하기도 했다.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오랫동안 수치스럽고 개인적인 불행으로 치부되어 역사의 저편에서 묻혀 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규명하지 않으면 안될 한일간의 역사 문제로, 피해자와 인류 앞에 사죄하고 피해배상해야 할 전범국의 정부책임문제로 인식하는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다.

5) 평화운동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

진보적 여성운동단체와 교회여성단체들이 '평화군축운동과 여성운동', '평화를 만드는 여성'

등의 자료집을 내고 산하 여성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평화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독교 여성단체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평화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활동과 평화통일 옷놀이판을 전쟁무기 장난감과 교환해 주고 무기 장난감을 폐지하는 운동을 펼쳐 왔다. 그리고 교회여성단체들은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였고 13개의 교단여성조직과 9개의 여성 단체가 결합하여 '95통일희년교회여성연합회'를 결성하여 교회여성 통일희년 대회를 개최하였다.(95.8. 한국여성 NGO 평화분과위원회 보고서)

평화를 위한 한국여성운동 전략

김 숙 임 정책기획위원장

1. 평화NGO 포럼-Focus

개막식 이후 8월 31일에서 9월 8일까지 전개된 평화와 인간안보에 관한 워크숍은 460여개에 이른다. 하루 평균 50여개 이상되는 평화포럼은 폭력, 건강, 종교에 관련된 내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군축, 평화교육과 문화, 난민, 재향군인, 인신매매, 강제종군위안부, 여성군인들의 문제 등 너무나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준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취소된 워크숍도 많았다.

내전중인 보스니아, 소말리아, 수단, 르완다, 전후의 캄보디아, 베트남, 중동,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 여성, 핵실험의 주대상지역인 남태평양 원주민 여성과 티벳여성, 체르노빌, 키에프 등 러시아의 핵무기제조회사 및 원자력발전소 부근의 주민 등 수많은 나라의 평화 NGO들이 자신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에 대해 증언하고 평화운동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국 NGO들도 정신대문제 세미나, 남북여성의 만남 등 워크숍 등을 통하여 그 대열에 가담하였다. 다음은 평화 NGO 워크숍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압축 요약한 것이다.

20C 초에는 전쟁 전사자의 약 90%가 군인이었던 반면 오늘날은 약 90%가 민간인인데 여성과 어린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십년동안 전례없이 발생된 군사분쟁으로 5천만의 피난민이 전세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중 75%가 여성과 아동이다. 150만 이상의 어린이들이 죽고 400만 이상이 영원한 불구가 되었고 1천500여 만명이 집을 잃었으며, 1천만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셀 수 없이 많은 소녀와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으며, 강간은 소수 민족이나 종족말살 등의 전술적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310회의 핵실험이 있었고, 그 지역들은 핵폐기물처리장으로 파괴되며, 3대에 이르기까지 어린이가 피해를 받고 암 유발등 건강이 절대 위기상태에 빠져 있다. 전 지구적으로 64개국에 10억개가 넘는 지뢰가 산재되어 있으며, 지뢰로 인해 불구가 된 여성은 남자에게 버림받는다.

현재 세계군대에서 쓰는 돈은 1분당 2백만달러이다. 세계 시장경제가 북반구 중심의 군수산업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TNC 중심의 무기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대국들의 핵실험

힘이 계속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기를 만드는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평화 없이는 생존과 어떤 종류의 발전도 불가능하므로, 평화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 지구상에서 평화와 인간안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핵을 포함한 일체의 무기를 생산판매, 수입하는 것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비삭감, 플라토늄 제조 반대운동, 핵실험과 제조에 쓰이는 예산의 즉각정지, 무기 수입예산에 비례한 세금안내기, 핵무기제조회사의 상품에 대한 불매, 징집반대 등의 많은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공통된 내용은 전쟁과 분쟁, 무기확산을 중지시키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문화만들기를 위해 여성의 참여가 증대되어야하며, 참여를 통해 평화에 대한 여성의 의무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에 관한 워크숍과 Plenary에서 주조적으로 활동하고 Peace Tent를 조직한 단체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이다.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군축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이 조직은 1951년 1차 세계대전 이후 창립, 산하에 42개의 여성평화조직이 회원단체로 가입되고 있고, UN의 자문기관으로 10년전 제3차 나이로비 여성대회 때에도 평화텐트를 후원하였다. 평화텐트에서는 군축의 날, 평화교육의 날 등으로 주요 이슈별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2. 북경여성세계대회의 행동강령-평화에 대하여

'평화업이는 평등,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화두로 시작된 평화강령에서 앞으로 현실적인 국가적, 국제적 근거가 될 수 있게 채택된 내용은 전쟁과 분쟁상황에서의 강간(특히 조직적인)은 인간성에 위배되는 범죄로서 인종말살과 마찬가지로 전쟁범죄에 해당, 전쟁범죄자의 기소, 처벌, 희생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제공해야한다는 내용(E3.d.f)이다.

이 내용이 채택되게 된 것은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해 수 년전부터 북경회의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온 한국여성 NGO와 아시아여성 NGO 연대의 집요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화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관용을 증진시켜 갈등을 해결한다는 내용(E4.e)은 분단상황에 처해 있는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강대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핵실험에 대해 어떠한 국제적인 처벌로서 규제조치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E2.f: 핵무기 제거를 촉진해야 한다라는 정도)과 무기감축을 위해 군비삭감을 일정 비율로 정하는 강력한 조치가 없는 점은 여성회의가 다른 회의에 비해 세계평화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잘 살려내지 못한 아쉬움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북경세계여성회의 이후 평화를 위한 한국여성운동전략

(1) 기본전략

1) 평화에 대한 정신을 보편적 가치로 사회에 확산시켜 나간다.

평화운동과 여성운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은 무엇인가?
여성들의 평화운동 전망은 넓고 장기적인 목적성에 기초해야 한다. 다양한 개인, 집단, 가치관으로 전쟁, 폭력, 반목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

평등, 관용, 협력, 화해라는 개념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2) 군사안보를 인간안보의 차원으로 전환시켜 나간다.

무기 및 군사력 중심의 군사안보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인간중심의 사회발전을 위한 인간안보를 지향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통일시대를 만들고 평화를 실현시켜 나간다.

(2) 행동전략

1) 평화문화 증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촉진하기

① 여성단체들마다 평화가치관 형성과 전략 중심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평화운동의 여성지도력을 배출해야 한다. 평화운동에 대한 여성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정부는 학교와 언론에서 평화교육과 평화문화를 다루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여성단체들이 평화운동 지도력을 배출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무기감축 및 군비축소, 폭력수단 제거를 위한 여성의 역할 증대하기

① 군사비 삭감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95년도 우리나라 방위비는 총예산의 22.1%인 11조 744억이었는데 96년도 방위예산이 4만에 두자리 수인 10.7%의 증가율을 기록, 12조 7천 36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방위비 증가는 무기를 증강시키고 동시에 여성복지와 사회복지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냉전의 지속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에 대하여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여러 요구활동이 있었으나 방위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방위비 삭감을 위해 여성들의 단합된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

② 무기감축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기전시회를 통해 무기거래는 계속되고 있으며, 96년 한국은 미국 무기의 제1위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민족공동방위전략의 확립을 요구하고 또 남북한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남북한의 상호군비축소를 위해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무기감축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효과적인 전력축소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③ 우리나라 방위비중 2조 456억원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한 분담금으로 사용되는데 미군 주둔비의 78%를 차지한다. 외국군 주둔으로 인한 군사분담금을 미군기지 사용료 요구운동, 외국군 주둔기지 반환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철수를 통해 국민복지예산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④ 정부는 군비통제실등 전반적인 군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에게 정보와 자료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여성대표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전쟁 및 갈등상황으로 인한 여성의 인권유린을 감소하기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하여 국제적 근거를 확고히 마련하였는데, 이제 그 역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여야 한다. 일본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하고 책임자 처벌, 재상을 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하고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진상조사를속히 진척시키고 일본의 민간 위로금을 거부하는 대신 국민모금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정신대 할머니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②주한미군에 의한 성범죄는 약소국 여성의 문제일뿐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이다. 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본에 비해 훨씬 낙후된 미군지위협정등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군 주둔으로 인해 자행되는 성범죄에 대해 여성의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법률개정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주적으로 나서야 한다.

4)갈등해결을 위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화를 위한 여성지도력을 증진시키기
 무력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관점과 참여가 중요하다. 여성들이 국제적 시각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강대국 중심의 불공정한 핵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남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원칙을 강제 당하고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세계평화를 위해 한반도가 세계 지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전지구적으로 핵 불사용을 요구하는 일은 매우 설득력있고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평화를 위한 활동에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남북 여성교류의 활성화와 분쟁의 해결을 위한 여성평화감시단의 파견, 활동을 위해 여성을 훈련시켜야 한다. 또한 여성이 평화를 위해 국내·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 지원하여야 한다.

5)난민 여성돕기
 여성과 정부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유럽처럼 난민 여성돕기에 어느정도 환원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 난민여성에게 피난처 제공, 식량 및 의료서비스 등 자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평화운동을 위한 한국여성운동의 과제

현재 한국여성운동은 평화운동을 위한 전문적인 국제네트워크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운동에 있어서 평화운동의 국제화, 전문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국제 평화여성조직과 연대하고 UN과의 관계와 지역별, 나라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평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하고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평화문화를 확산시키고 평화를 위한 정책을 확립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여성운동가들의 인식의 전환과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여성운동은 이러한 평화운동의 전망 속에서 국민대중들에게 평화의 정신을 심어 나가고 동시에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통일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5.10. 북경여성대회 보고서)

자료4

북한 식량난의 실태

박경서 자문위원(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국장)

머리말

1996년 3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북한 수해지역을 방문했습니다. 3월 방문 때에는 주로 황해도 사리원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자갈과 모래, 황토흙으로 뒤덮여진 농토들과 무너진 제방을 살살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10월 방문은 95년 2차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지역이었습니다. 갖가지 복구작업과 복구된 제방 등이 다시 내린 비로 인해 파괴되어 버린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제네바사무실과 친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기아현상은 1985년의 에티오피아의 기아현상보다 극심하다. 현재의 이북 국민들은 700g 정도 받던 일일양식을 100g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반그릇의 밥을 3끼로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UN의 도움으로 받는 일일식량(밥)의 1/6에도 못미치는 양입니다.

며칠 전 북한의 외교부는 “우리의 식량 재고는 30일분 정도 남았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WFP의 평양사무소 부책임자인 John이 제게 직접 보낸 서신에서는 “1997년의 WCC 1차분을 빨리 보내달라. 북한의 식량재고가 거의 바닥이 났다. 1997년에는 추수곡식이 나오는 10월까지 약 180만톤이 필요하다”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몸말

이미 알고 있는대로 1991년 구소련의 붕괴가 있기 전까지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소련, 구동독, 헝가리아 등과 거의 맞먹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1988년 6월, 나의 방북의 20일간도 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구소련의 붕괴는 북한경제에 치명타를 가했으며, 물물교환 형태 사회주의 국가간의 거래는 종말을 고하고 시장경제 체제 내의 현금 거래를 강요하므로 북한 경제는 서서히 그 지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은 냉전시대의 빚 20억불, 소련에 10억불, 서구의 은행에 최근에는 50억불(KEDO)을 일본과 한국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1993년과 1994년에 2차에 걸쳐 우박피해가 황해남·북도의 곡창 지대를 강타하여 추수 직전의 수확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는 세계식량기구의 통계만 보더라도 1989년의 총수확량인 810만톤이 1993년에 664만톤으로 줄은 것은 북한의 식량은 1991년을 고비로 급속히 하향곡선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박피해로 더욱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상황

그리고 2년 후인 1995년 7월 30일과 8월 18일 사이, 즉 19일간 300mm의 평균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내려 수재를 당하게 됩니다. 95년도에 방문했을때 곳곳을 살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홍수는 3번에 걸쳐서 반복되었습니다. 제1차는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백두산 지역의 고지대와 양강도, 자강도가 피해를 입었고, 제2차는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2주에 걸쳐서 내린 비로 인해 북한의 전지역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곳은 평북의 신의주, 위주, 자강도, 회천, 동신, 고평, 박천군 등이며 평남의 안주, 신양, 함남의 장진군 그리고 함북의 셋별군이었습니다. 특히 신의주지역은 조수간만이 빗물과 맞먹어 물이 빠지질 않아서 더욱 잠겼으며 123m 높이의 수풍댐 위로 2m 이상의 물이 넘쳐서 40여개 문을 다 열었지만 수위를 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3번째의 비는 8월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왔는데, 이때는 주로 중부지역 특히 황해북도의 곡창지대가 강타를 당하였고, 황북의 은파군, 인산군, 평산군 등이 포함되었고, 황북지역은 수재를 2번 당한 셈이 되어서 특히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하루동안 400-800mm의 집중호우를 당했고 되었고 댐들이 파괴되어 산에서 내려온 바위, 진흙, 모래들에 의해 곡식이 여물고 있는 농토를 갈아 문개었고 저장되어 있는 쌀과 곡식들을 휩쓸어 버린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피해가 152억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약 50만명이 집을 잃었으며, 약 7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농지 35만 정보가 침수되었고, 그 중 3만 정보는 복구 불가능하며, 26,000여 마리의 소, 66,000마리의 돼지, 10,000마리의 양, 32,195마리의 염소, 160,961마리의 닭, 108,532마리의 오리, 41,936마리의 토끼, 1억 8,000m²의 온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은 3월 4일의 '큰물피해대책위원회'와의 회의에서 밝혀진 숫자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1996년 추수가 이루어질 10월 초까지 북한은 200만톤의 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중 자체 조달 가능량이 70만톤이고, 국제기구를 통해 이미 전달받은 양이 56,000톤이며 앞으로 요청되는 양이 115만톤입니다. 이는 세계식량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북한은 다음과 같이 전체 국민의 식량조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북한은 평상시 900g의 식량과 잡곡을 9등급하여 중노동자 900g, 어린이 100g까지 등급화 시켜서 배급하여 왔는데, 수해 이후에는 평상시 배급량의 75%의 쌀과 잡곡을 3등급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95년 3월 제가 방문했을 때 전체 국민이 2끼의 양으로 하루를 이어간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하순에는 평균 250g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제가 제네바로 떠나가기 직전까지 평균 100g 즉,

반그릇의 식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북한은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하면 연 780만톤의 식량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이를 구분하면, 120만톤은 공업용, 약품용, 비료용으로 쓰이며 140만톤은 가축 사료용으로, 20만톤은 다음 해의 씨로써 저장하며, 20만톤은 호텔등의 외국인 식량으로 총482만톤이 되고 나머지 290만톤 이상이 2,300만 인구 식량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홍수피해가 스치고 간 1995년은 493만톤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쌀이 258만톤, 옥수수가 235만톤 그리고 75만톤을 외국에서 사들였습니다.)

1996년의 수확량은 280만톤으로써 자국 내에서 생산했고 95년 10월 20일 현재 174,000만톤을 시리아, 중국, 스위스, 파키스탄, 인도 등에서 사들여서 1996년에는 180만톤의 식량이 부족했습니다.(참고로 1995년에는 110만톤의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북한구호 현황

제가 근무하고 있는 WCC는 1989년 이후 장기개발자금을 동원하여 함흥의 공업대학의 실험실 기재, 원산의 농업대학의 벼 모종의 개발 프로그램, 수산대학의 어류개발실험, 개량 프로그램, 황해북도 사리원교회, 방학리 마을 개발 프로그램, 해월리 발전계획, 조선기독교도연맹의 프로그램을 돕고 있습니다.

1995년 7월, 8월의 수해복구를 위해 지난 1996년 1년동안 대강 쌀, 곡식, 밀가루 1만톤, 쇠고기 통조림 3콘테이너, 고열량 비스킷 3콘테이너, 1,500 상자의 어린이용 선물, 1콘테이너의 임산부 약품, 비닐하우스 원료 등을 북한에 수송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위에 말한 품목들은 대강 한화로 45억원 정도이며, 주로 독일교회, 독일정부, 덴마크, 노르웨이교회, 정부, 미국교회, 캐나다교회, 폴란드교회, 핀란드, 한국, 일본, 홍콩교회들입니다.

금년에는 곡식 10,000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 2월에 쌀 2,000톤, 보리씨 500톤, 비닐하우스 원료 200톤, 시금치씨 10톤을 공급하였으며, 이 제1차 구호에 이어서 제가 4월에 북한을 방문한 이후 보리 2모작 작황, 쌀의 질, 비닐하우스의 진척 등을 시찰하고, 물품 재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공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북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의 호소에 의해서 금년 3월 초순까지 약 6,000여톤의 보리가 북한에 공급되었습니다.(구주공동시장, 미국교회, 독일교회, 캐나다 식량은행 등에서) 제가 떠나오기 전날인 3월6일 평양의 연락에 의하면 중국에서 산 보리씨앗 중 절반 이상이 못쓰는 보리씨들이라고 망연자실한 것을 보고 보험에 들어 있기에 중국의 회사를 상대로 변상재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큰물피해대책위원회'에 하면 1997년은 쌀, 밀가루, 옥수수 등의 식량, 그리고 요소 비료들을 우선 순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97.3.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자료4에서 일부 발췌함)

대한적십자의 지원현황

1. 북한 수재 구호물자 지원배경

북한당국이 95년 7월 집중호우로 수재민 500만명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고 구호를 요청하자 국제적십자사연맹이 대표를 파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만6천세대, 13만명을 지원키로하고 대한적십자사에 지원을 요청함.

한편 정부는 북한 수재민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일화 함 또한 96년 7월 북한지역 집중호우로 2백여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3백 27만명, 재산피해 17억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북한당국이 발표함.

2. 대북지원 총괄(97년 3월 8일 현재)

·수입(성금)액: 2,030,137,914원(단체 80기관, 개인 96명)

* 적십자 예산: 1억 4천 4백만원 포함

·지출(지원)액: 1,824,570,390원

·잔 액: 205,567,524원

3. 성금 기탁자

·단체(80개 기관): 20억 6백만원

-종교단체: 12억3천1백만원

천주교 6억8백만원, 기독교 3억6천2백만원, 불교 1억4천6백만원, 범종단 5천만원, 원불교,천도교 등 6천5백만원

-시민단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6천만원 등 6억3천1백만원

-적십자사:1억4천4백만원

·개인(96명):2천4백여만원

4. 지원품목 내역

·밀가루 2,424톤(8억2,211만원), 전지분유 76톤(4억1,054만원), 담요 1만매(2억3,879만원), 식용유 18만6천리터(2억773만원), 라면 10만개(2천658만원), 양말 3만5천켤레(7천480만원), 탈지분유 8톤(4,209만원)

5. 전달방법 및 경로

- 구호품에 「국제적십자사연맹」 마크와 품명 표시(영어 및 한글)를 넣어 재포장
- 제3국 선박이용,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직수송하여 북한 체류 「국제적십자사연맹」 직원과 「북한적십자회」 직원들이 품목을 인수하여 이재민에 분배

6. 구호대상

- 국제적십자사 연맹직원이 현지 수재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긴급히 구호가 요청되는 2만 6천세대 130,000명을 대상으로 함.
- 지역별로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자강도 희천시, 황해북도 은파군, 황해남도 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 5개도 13개 시,군 지역임.
- 「북적」 및 「연맹」은 지역별 구호품 분배결과를 대한적십자사에 보내 오고 있음.

7. 국제적십자사연맹의 3차 호소(일본, 한국)

- 호소금액: CHF 13,533,000(한화 약 88억원)
- 대상인원: 139,000명(28,000세대)
 - 1,2차 구호대상지역 5개 시·군(95-96년도 피해지역)
 - 추가지역: 10개 시·군(96년도 피해지역)
- 구호기간: 11개월(97년도 10월까지)
- 목표:
 - 식량지원
 - 월동용품 지원
 - 재활사업 지원
 - 북적의 역량 강화 (97.3. 북한수재 물자지원 종합보고 중 일부 발췌함)

노래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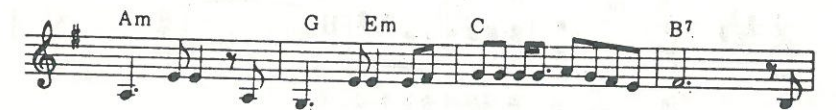
-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 비무장 지대
-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그날까지
- 서울에서 평양까지
- 아버지의 고향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줌 될 수 있다면

백창우 글, 곡



우 리의노래가 이 그늘진땅에 따듯 한 햇볕한줌 될수있다면 어



름 산천 타 오 르는 작은 햇볕하나 될수있다 면 우



리의노래가 이 잠-든땅에 북소 리 처럼 울려 날수있다면 침



묵 산천 솟 구쳐 오를 큰 합성하나 될수있다 면 정



말 좋 겠 네 하늘 첫마을부터 땅



끝마을까지 무 너진집터에서저 공장끝까지 아아 사 람의노래
늑 슨철책선 넘어서 지뢰밭까지 해 방의노래



평 화의노래 큰 강 물로흐 물그 날 그 날 엔
통 일의노래 큰 눈 물로흐 물그 날 그 날 엔



이름 없 는곳들 다 이름얻고 움 추린어깨들 다

Fm B7 E A E

퍼졌네 - 닫힌 가슴들 다 열 리고 쓰 러진이들 다 일어나

B7 E A B7

아침을맞겠네 그 날이오면 그 날이오면 모 두하나될그날이오

E B7 E A B7

번 일 사 안고 춤 을 추겠네 한 판대동의춤추겠

E rit. B7 A E

네 한 판대동의춤추겠네

D.S.

비무장 지대

F C

비무장 지대로 가자 비무장 지대로 가자

F Am Dm F C

앞쪽진 군복은 벗어라 여기는 비무장 지대 가

F Am Dm F C

비무장 지대로 오라 비무장 지대로 오라

F Am Dm F C

다만총을 버리고 비무장 지대로 오라

F Am Dm F C

관 찰을 삼바지 중 남정 네 들은 함겨투 기

F C

그 네타기 노을 너 - 을 춤 - 추 며

Fine

D.S.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그날까지

백창우

Am Em Am Dm G Em

1. 어느 누가 이을건가 어느누가이을건가 -
2. 그- 누가 찾을건가 그-누가찾을건가 -

Am F Am G Em Am

남누리북 -누리 - 갈라진우리누-리 -
남누리북 -누리 - 빼앗긴우리누-리 -

F G7 Am F Dm G G7

우리 뿐 일 세 - 우리 뿐 일 세 -

E F Am G Em Am

이 땅 을 딛 고살 우리 뿐 - 일 - 세 -

Am Em Am Dm G Em

함께 가세 함 게가세 해방의큰 춤추 며 -
함께 가세 함 게가세 통일의원 춤추 며 -

Am F Am G Em Am

남누리북 -누리 - 하나되는 그날까-지 -
남북 땅 북 -북 땅 - 통일되는 그날까-지 -

서울에서 평양까지

조재형 글 윤민석 곡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만-원-
 분단-세력- 몰아-내고- 통일만-된다-면-

소련도가고- 달나라-도가고- 못가는곳없-는--데
 돈못받아도- 나-는-- 좋아- 이산가족태우고-갈래

광주보다- 더가-까운- 평-양은왜-못-가
 돌아올때- 빈차-결랑- 울다죽은내-형제-들

우리-민족- 우리-네땅- 평양만왜-못-가
 목은-편자- 원혼-이나- 거두-어오-지

경-적을울리-며 서울에서평양까-지

꿈속이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아버지의 고향

작사·작곡 박찬숙

아버진잠이상도하-지- 왜- 한번도- 고향-애기- 안해-주실-까
 아버지의- 고향-앞산-은- 싸- 리-꽃이- 흐트러진- 남산-이-랬-지

살아-생전-가고-싶다- 생각-조차도-편치- 못-하-셨-은-까
 한-번도-토해-내지- 못-하-신-부모- 형제-그-추-억

고향-애기-꺼내-면- 못-견디-게-될-까-봐- 두려-우-셨-을-지-물-라- 많-음
 언-젠가-해-기는- 산-마루-에-들-과- 바다-건너-긴-한-숨-만-청-채

조차-못-꺼-내-신-그- 이유-를-이-젠- 양-것-같-아-
 선-더-머-부-서-지-는- 파-도-엔- 아-버- 지-의-고-향-마-음-이

그-긴-세-월-그- 진-한-피-눈-물-어-뎡-게-감-추-셨-을-까- 아-버-
 통일-의-바-람-통- 일-의-새-되-어-통-일-의-노-래-되-어-저-

지-의-흰-머-리- 더-늘-기-전-에-통-일- 통-일-이-여-오-라
 바다-건너-아-버-지-의- 고향-가-는-길-통-일- 의-다-리-가-될-래

* 이 노래는 박찬숙님(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부회장)께서
 항해도 해주가 고향이신 친정아버지를 생각하며 96년도에
 만든 노래다.